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끔은 외딴곳에 살고 싶다

-김성국-



어쩌다 오는 우체부가 물 한 그릇 청해 목 축이는
그런 외딴 곳에 살고싶다
꽃분가루 묻은 나비보고 곤충채집하던 시절이 문득 떠올라
목이 메이는 그런 곳

밤 되어 누우면 신문지로 벽지한 천정에
쥐 오줌자국 번져있는 백번도 더 읽은 감기약 선전
돌아누우면 방벼락에
불펜 뚱 문혀가며 흘러 적어놓은 노래 가사
누워도 돌아도 어디 심상한데 없는
가끔은 그런 외딴 곳에 살고 싶다
모처럼 온 친구밥상에 아끼던 장조림 올려 넉넉해하고
빨아 신으라고 벗어 놓고 간 양말 보며
그리움을 쌓아 가는 곳
그러다 마음 저 밑에서 더 깊은 고독이 차오면
달밤 찬 기운에 앉아 소리 없이 울어도
누구하나 엿보지 않아 좋은
더 먼 외딴 곳을 찾아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아직
아내의 처녀적 예쁨이 남아있고
아들과 오줌멀리누기 시험한다해도
가끔은
외딴 곳이 사무치게 그림다



◀그뻘 그랬지▶ "풍구"를 기억하시나요?

"풍구"!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그때 풍구로 아궁이에 바
람을 불어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무시로된 풍구는
장난감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좋은 장난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궁이가 사라지니 풍구도 자연스럽게 되었
습니다. 그리워지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나
찾게 되나 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51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2월 21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롬살롱의 크리스마스

-최재하-



1990년 겨울, 나는 그때 "우물가"(유홍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갈
남에 있는 한 롬살롱의 웨이터로 위장취업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롬살롱의 크리스마스 이브 밤은 점점 깊어졌고
술좌석은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가요처럼 연주되는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추어 고향을 찾고 술을 마셨고 온갖 음담패설과 음란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마침내 12시가 넘었고 셔터가 내려지자 손님들은 아가씨를 끼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웨이터들과, 짝짓기에 참여하지 못한 아가씨들은 대충 정리를
끝내고 B룸으로 모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을 세어보니 17명
이나 되었습니다. 나는 전등을 끄고 케익에 불을 붙였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산만
했고 마담이 누구의 생일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 주었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산만했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그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유향으로 거만했던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하고 외롭고 비틀거
리는 상한 마음들을 눈물로 어루만져 주었던 단아한 그의 사랑은 지금 듣고있는 그
들의 심정을 가장 잘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마침내는 여기저기서 눈물을 찍어내는 모
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슴에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추악한 일에 쓰임 받던 그들이, 그리고 그곳 공간이... 가장 거룩
하게 드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슴이 미어지도록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롬살롱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매주 성경공부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공부모임은 2년만에 끝을 보게 되었는데 그 롬살롱의 주인이 신앙
을 이유로 전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김은 바삭바삭해야
제 맛이 난다
녹녹한 김은 맛도 없고
게으른 주부라는 인상을 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하기 전에 기도하거라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거짓이고
기도없이 일만 하는 것은
노에짓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문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5(강림절 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13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박일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18-25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의 탄생하심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22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7	김영길	김미재	지재만, 김현숙	유병민, 유종옥
14	노은숙	김봉희	겨울의 신부	윤형권, 이광희
21	박일영	김선영	2003 화장실봉사	이근평, 이재영
28	이광희	김순화		이재운, 이주익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한국방문후 귀국> 강순남 집사
<한국방문> *이재영 집사
*신미숙 성도
<한국귀국> 박필순 성도, 종화, 종원 (27일)
<이사> 최현철, 한상순 집사, 은수. ☎ 476-0906 ☒ 2/5 Gull Lane, Murrays Bay
- 항존직분자 모임: Tea Time 후 모입니다. 장년부실.
- 유아세례, 세례자, 입교자 모임
<일시> 22일(월) 저녁 7시 30분, 장년부실
- 성탄축하의 밤 <일시> 24일(수) 저녁 5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교회의 잔치입니다. 평소 전도하고 싶은 이웃, 성탄절을 함께 기쁘게 보내고 싶은 이웃을 1가정씩만(장소관계) 초대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성탄절축하예배. <일시> 25일 새벽 1시, 본당
*이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은 정말 고요한 밤에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행사로 좀 피곤하시겠지만 아침에 조금 늦잠 주무시는 것으로 위안 삼으시면서 영광과 평화의 축하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예배시 성례식(세례와 성찬)을 갖습니다
- 남여선교회 모임: 분립총회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여선교회 분립: 각각 4개 선교회로 분립합니다
*1선교회: 56세 이상(54년생 이상) 2선교회: 50세-55세(50년-55년)
3선교회: 45세-49세(56년-60년) 4선교회: 44세 이하(61년 이하)
<회장선출방식> (1)1년 이상 갈보리교회 출석회원 (2)서리집사로 임명 받은 회원 중에서 연장자 되신 회원이 자동적으로 회장(항존직분자는 회원으로만)
*선교회 원칙:(1)선교지원(정기적 혹은 부정기적) (2)회원친교
회비가 필요할시에는 \$5-\$10사이에서 책정
- 다음주부터 연속 2주간의 수요일예배는.....
*성탄축하의 밤(24일, 저녁5시), 송구영신예배(31일, 밤 11시)로 드립니다
- 자원봉사지원서
*각 가정으로 보내드린 자원봉사지원서를 안내석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시인들▶
"아이들을 잘 길러주세요,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오.
사람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
메마른 세상, 우리 사람으로 남읍시다"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 중에서-

세상을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나눈다면 꽃이 꽃인 것은 꽃만이 내 뽀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이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는 사람다움을 잃지 않을 때 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입니다